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닭고기 유통경로조사 발표

육계산업에 년간 291억 지원 당위성 제기

본회가 수입닭고기 증가에 따른 국내 육계산업 보호차원에서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지난 5월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 닭고기 국내 유통경로 조사' 가 마무리되었다. 연구책임을 맡아온 김정주(건국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수입 닭고기는 아직 유통체계 및 위생적인 문제가 많으며 가격면에서도 크게 유리한 점이 없어 국내 닭고기의 신선도와 위생수준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경우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 수입자유화가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친 영향을 PEA(부분균형분석) 방식을 적용, 계산한 결과 정부가 육계산업에 환원해야 할 금액이 1년에 29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관련내용 본문 92쪽)

계란 등급 및 품질(안) 발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필요

농림부는 지난 7월 24일 계란 중량과 품질 등급기준(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기준(안) 발표 이후 관련업계의 반응을 보면 계란중량의 경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를 모방한 색채가 강하며, 품질등급의 경우 시행에 앞선 근본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본 계획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소위원회를 개최, 1~2차례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10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실시시기도 준비상황, 공청회를 통한 분위기 성숙도를 감안하여 추후 정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상인단체 통합 지난 28일 공식출범

그 동안 막판 진통을 겪어온 수도권 상인 조직이 한국계란유통연합회로 통합되면서 지난 28일 공식 출범하였다.

수도권 상인단체는 지난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생산자들과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혼란에 빠져있는 계란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으며, 이 의중 상인 대표는 계란소비홍보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후장기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앞으로의 계란유통에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계란유통 개선정책 추진 계란 냉장유통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유통 개선 정책에서는 농가에서 우선 실행가능한 사항부터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회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계란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그 주요 내용으로 지역별 집하장 대폭 확대, 서울지역에 공판장 2개소 설치, 액란가공처리장 증설, 계란 냉장유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지원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살처분 도태장려금 지급 요령개정(안) 고시 뉴캣슬병, 가금인플루엔자 지급대상에 삽입 견의

농림부는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개정(안)을 보면 가축의 조기도태 및 장려금 지급대상에 양계질병이 직접 거론되어 있지 않아 소, 돼지 분야에 국한된 방역정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뉴캣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를 개정(안)에 삽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소독실시 의무화 8월 25일, 9월 15일 전국 소독의날 선포

농림부와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8월 25일과 오는 9월 15일을 “전국 소독의 날”로 선포하고, 앞으로 모든 양축농가는 매월 1회 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약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계농가로서는 소독약 구입 및 방역장비 등 시·군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며, 소와 돼지에 편중된 방역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어 전죽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내용 본문 166쪽) 양계